

광주비엔날레 5·18 40주년 'MaytoDay' 서울전 6월 3일~7월 5일 선재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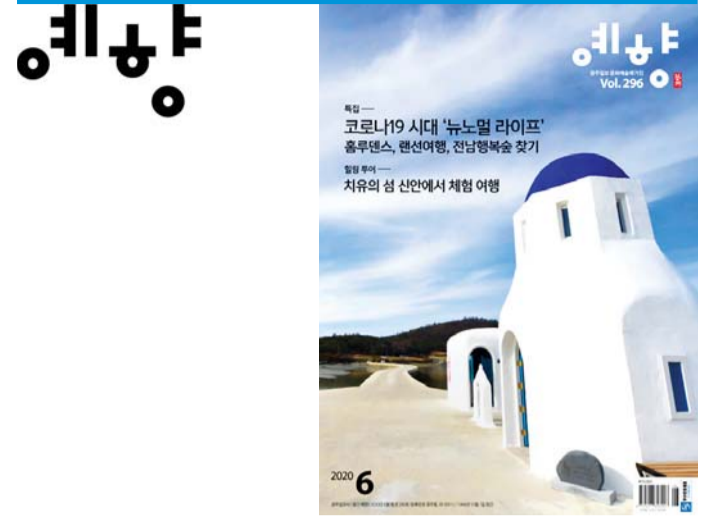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6월호



독일 큐레이터 우테 메타 바우어 총괄 기획 "5·18은 어떻게 민주화의 '길' 되었나 조명" 역대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아카이브·사진 강연균·노순택 등 5개국·26팀 190점 전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전 '민주주의의 봄'이 오는 3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 선재아트센터와 나무아트에서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라이프'를 만나다

# 여전히 진행중인 80년 '민주주의의 봄'

'민주주의의 봄' (Spring of the Democracy)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건 1980년 5월 20일 '민주항쟁의 성지' 도청 앞 광장과 분수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이상성 전 기자의 사진이다.

배영환 작가의 작품 '유형가: 입을 위한 행진곡 ver.2'를 구성하는, 광주 시내 어디선가 떨어진 보도블럭엔 '입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가 한자씩 새겨져 있다. 10여개의 작은 모니터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과 창가 옆 화분이 교차돼 보여진다. 2000년 광주비엔날레 출품 당시 오월 항쟁 기록 등을 영상으로 보여줬던 작가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관심과 인내와 노력으로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형'임을 암시한다.

강연균 작가의 '하늘과 땅 사이 I'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들, 그들을 품에 안고 슬픔에 절규하는 이들, 공포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1981년 서울 신세계갤러리에 처음 전시돼 큰 충격을 안긴 작품은 1997년 제2회 비엔날레에도 출품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노순택 작가의 '망각기계' 연작은 옛 5·18요역에 놓인 희생자 영정 사진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촬영한 작품이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풍화돼 사라지는 모습을 담은 작품은 기억하는 것, 잊혀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재)광주비엔날레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의 동시대성을 탐색하고자 기획한 'MaytoDay(메이투데이)'의 서울전시 '민주주의의 봄' (7월5일까지)이 선재아트센터와 나무아트에서 열린다. 오는 3일 공식 개막을 앞두고 지난 28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목판화 색션 기획을 맡은 김진하 큐레이터와 권승찬·임민우·노순택 등 참여작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독일 출신 기획자로 이번 전시를 총괄한 우테 메타 바우어는 싱가포르 자택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전시 의도 등을 밝혔다. 20여년전부터 수차례 광주를 방문한 바우어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전시를 기획하며 압박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카이브 자료를 쟁기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5·18이 어떻게 한국 민주화에 이르는 '길'이 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취를 이루었는지 들여다 보려 했다"며 "다양한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감정의 지도를 보여주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임을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위주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등을 만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5·18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창설 당시부터 오월정신의 구현을 주요 목표로 삼았고 지금까지 12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5월'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번 전시는 역대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당대의 아카이브 자료와 판화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는 기획이다. 전시에는 5개국 작가 및 연구자 26명(팀)이 참여해 190여 점을 선보인다.

1996년 오형근 작가가 선보였던 '광주이야기' 연작 시리즈의 출발은 5월을 다룬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의 현장 사진 촬영이었다. 당시 전남도청에서 재현된 5·18 시위장면 촬영에는 광주시민들이 3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그는 영화 촬영을 담은 스틸 사진과 함께 당시 현장에 모였던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앵글에 담았다. 오 작가의 작품 바로 뒷면엔 이창성·나경택 등이 찍은 당시 보도사진이 전시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재현과 실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느낌이 든다.

제10회 광주비엔날레(2014) 개막식 생중계 퍼포먼스로 공개된 '네비게이션 아이다.X가 A에게'를 재편집해 전시한 임민우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애도받지 못하는 존재, 애도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권승찬 작가는 전시장을 가로질러 오른쪽과 왼쪽에 똑같은 포즈를 취한 군인과 시민의 모습을 담은 '거기 2'를 전시하며 흥성답 작가는 오월

항쟁을 다룬 목판화 연작을 선보이고 있다. 또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국 작가는 기상의 영화 '광주 탈출'의 포스터와 입간판 등을 전시하고 있다.

구 전남도청 광장에서 모티브를 얻어 기획한 2층의 전시공간은 익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망자들의 목소리를 재조명하는 공간이다. 5·18재단 등과 협력해 마련한 사진·영상과 함께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당시 취재 자료, 미국 행정부를 최초로 폭로한 미국 기자인 팀 서록의 자료를 비롯해 서적 등을 통해 관람객이 당시 역사 현장의 기록들을 직접 탐색하게 한다.

이 곳에서는 광주 출신 작가들의 목판화도 만날 수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당초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규모 목판화 전이 취소되면서 '항쟁의 증언'이라는 색션으로 이번 전시에 일부 편입됐고 나머지 작품은 인사동 나무아트갤러리에서 '광주 오월목판화-항쟁의 증언' (30일까지)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조진호·한희원·이상호·정희승·이강하 등이 참여했다.

'메이투데이'는 다국적 프로젝트다. 타이페이, 쉐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전시는 9월 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통합전시를 선보이며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전 세계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www.maytoday.org). 전시관람은 예약제로 진행된다.

/서울=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비대면 의료, 비대면 서비스업 등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할 때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6월호는 특집 '코로나19 시대, 뉴 노멀 라이프'를 통해 랜선꽃놀이, 랜선여행, 홈가드닝 등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치유의 숲' 보성 일림산 산철쭉 평원과 담양 만성리 대숲 걷기, 자연과의 소통을 담은 숲 식물 관련 도서 등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방랑 식객'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를 만나고 왔다. "자연에서 나는 것은 아무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는 자연에서 음식재료를 구한다. 자연은 물론 길에서 만난 모두가 스승이었다. 강화도 바닷가에서 임지호를 만나 만나 요리철학과 인생, 가을에 개봉하는 다큐영화 '발정' (情)에 대해 들었다.

초여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진으로 떠나는 '싸목싸목 남도 한바퀴'도 볼거리다. '남도답사 일번지'로 불리는 강진은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가우도 쥘트랙을 이용해 바다를 가로질러 활강하며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 강진의 역사와 인물, 생태, 먹거리 등 다채로운 매력을 찾아 떠나본다.

한국의 산타야고 '12사도 순례길', 아름다운 섬 자은도 '무한의 다리', 여유와 평안을 찾아가는 '1004섬 자전거길'까지 발길 닿는 곳곳이 힐링이 되는 곳 '천사의 섬' 신안으로 떠나는 여름 나들이도 추천한다.

'클릭, 문화현장'은 개관 15주년 맞은 고흥 남포미술관 이야기다. 고흥군 영남면의 옛 폐교를 리모델링한 남포미술관(관장 광희수)이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았다. 예향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사립미술관이 없었던 전남에서 남포미술관은 개관 이후 굵직한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미술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남 제 1호 등록미술관에서 전국구 미술관으로 자리잡은 남포미술관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 본다.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KBO리그가 개막했다. 국내 야구팬들은 물론 세계 스포츠 팬들까지 한국의 그라운드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된 2020 시즌은 선수들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온다. 개막과 함께 희망의 그라운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의 기량과 활약을 파헤쳐 본다.

이와함께 사회적 통합 프로젝트 '수퍼리퀀'으로 행복한 도시 풍경을 완성시킨 덴마크 코펜하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축, 주민의 삶에 스며든 건축으로 공공건축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전북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고전문화부터 현대문화까지 깊은 뿌리를 지닌 전주 전북문화관을 소개한다.

시를 읽고 영화를 보고 리마인드 웨딩을 하면서 울고 웃으며 추억을 더해주는 할머니들, 그런 할머니들의 소중한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다큐 영화 '정하게 에베네'를 만든 정경희 감독 이야기도 전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